

데스크탑

이연수

부국장 대우 겸 경제부장



또 낯빔을 쏘다. 가볍게 유튜브 쇼츠 몇 편 본다는 것이 SNS 기웃거리기로 이어졌고, 그러다가 날이 밝았다. 전날 오후 늦게 카페인을 섭취한 것도 아닌데, 밤새 다른 종류의 ‘카페인’에 빠져버린 것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기 쉽고 과몰입하면 우울증에 박탈감, 불면증과 초조함의 증상을 겪는다는 그 중독성 강한 카.페.인.

현대는 중독사회다. 커피, 알콜, 니코틴, 성형, 명품, SNS 등 습관이 빚은 다양한 중독 양상을 쉽게 본다. 잘 나가던 연예인의 마약 중독, 며칠을 굶어도 자신이 배고픈 것도 모른다는 도박 중독, 끝없는 소비욕구를 부르는 쇼핑 중독 등 병적인 중독 요인들이 얼마든지 넘쳐난다.

변연계 자본주의의 승리

미국 노스플로리다 대학의 데이비드 코트라이트 교수는 책 ‘중독의 시대’에서 현대사회 중독의 이유를 ‘변연계 자본주의’가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변연계는 사람의 뇌 중추 가운데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을 관장하는 부위다. 변연계 자본주의는 뇌에 단발적인 강력한 쾌락을 주어 파괴적인 나쁜 습관을 만드는 제품이 사회에 만연하고, 이러한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체제라는 것이다.

기고

주용철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부장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길을 건너야하는데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3월 학기가 시작되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상자 1,996명 중 (사망 22명, 부상 1,974명) 53.7%가 (1,072명) 하교 후 시간대인 오후 2~6시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오후 4~6시에 사상자(539명·27%)가 집중됐다. 교통사고 피해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집중됐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한다. 광주시의 경우 전체 사상자 66명의 반절 정도인 34명(1명 사망)이 저학년인 1~2학년에서 발생한 점을 살펴봤을 때, 우리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독자광장

인터넷·SNS 등에 익숙한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인 2022년에는 294명으로 최근 5년간 1,112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마약의 위험성 등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고 마약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과 한 번 빠지면 되면 심문적 치료 등을 받아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을 청소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

중독에 빠져버린 사회의 말로(末路)는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편에 중독되어 나라가 휘청거렸던 청나라의 아편전쟁이 대표적이다.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은 영국으로부터 청나라에 밀수입된 아편 중독자들이 늘어나며 촉발됐다. 청의 무기력한 패배로 끝났지만 아편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중국은 현재까지도 마약과 관련된 범죄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는 커피 중독자로 일생을 보냈다. 카페인 중독으로 사망한 그가 마신 커피는 하루에 50잔 정도였으며, 평생 무려 5만 잔의 커피를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유부녀 백작부인을 사랑했던 그는 하루 15시간 이상씩 글을 쓰기 위해 커피를 마시며 잠을 쫓았는데 18년에 걸친 구애 끝에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지만 카페인 과다복용과 과로로 결혼 5개월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나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린 이탈리아의 파가니니,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18세기 영국의 샌드위치 백작 등은 도박 중독이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도박 집착은 ‘도박꾼’, ‘죄와 벌’ 등 불후의 명작도 남겼지만 평생 삶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도박빚에 시달렸던 파가니니는 자신의 바이올린마저 빚을 갚기 위해 처분해야 했다.

현대는 24시간 스마트폰 중독의 ‘포노 사피엔스’ 시대다. 2015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휴대전화를 뜻하는 ‘포노(Phono)’와 생각·지성을 뜻하는 ‘사피엔스(Sapiens)’를 합성해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신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로 처음 정의했다. 지난해 10월 판교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혼란 사태에서 보듯 우리는 어느새 모두 포노 사피엔스가 됐다.

포노 사피엔스들이 과몰입하는 SNS는 쉽게

중독사회

건강마저 위협하는 존재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관중’들이 스스로 중독되고, 보는 사람도 중독시키는 어마어마한 세상. 팔로워 수가 새로운 부(富)도 창출하는 시대에기에 SNS 중독은 경제와 무관할 수도 없어 더욱 집착을 낳는다. 실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빅테크 기업은 일회성 판매보다는 오랜 시간 플랫폼에 머물도록 하는 중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심리적 허기에 빠진 중독사회와 중독을 판매하는 현대사회. 중독은 개인적이고도 심각한 사회문제다. SNS에 드러난 타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고, 반대로 자신의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좋아요’나 댓글이 달리지 않으면 초조해지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다. 끊임없이 인증샷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SNS를 기웃거리느라 불면증에 시달리며 일상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진다.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해

이 같은 현상은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쟁하듯 확산된 SNS 열풍을 타고 남들의 삶을 엿보기 쉬워지면서 남들만큼 잘 살 자신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SNS에서는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같아도 어쩌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가면일 뿐이거나 정신적 빈곤의 소산물일 수도 있다.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라고 자조하면서도 이미 박탈감과 허무감이 한바탕 휩쓸고 간 다음이면 멘탈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피폐해진 생각과 주체성을 되찾기 위해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분간 ‘카페인’을 줄여 일상을 되찾아보리라.

내 아이, 안심하고 학교 보내려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정규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러나 방역조치 완화로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며 그 감소세는 멈췄다.

결국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이유는 비단 어린이의 교통행동 특성에만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변화에 따른 어른, 즉 운전자의 행동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방과 후 활동, 야외활동이 증가해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윽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교통현장에서 위험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교통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체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에 학교와 가정에서 보행안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무면허로 이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어린이는 어른의 옳지 않은 행동마저도 모방하려는 성향이 있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또래집단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유념해야하는 부분

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운전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운전자는 학교, 주택단지, 상가 주변에 어린이 보행자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여 특히 학교 주변 스쿨존에서는 절대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반드시 준수하되,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불법 주정차하지 않아야 한다. 이로써 사각지대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돌발행동에 대비하고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안전 보행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 처럼 제도의 개선, 시설의 보완 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마약, 근절 대책 필요

는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마약 김밥’, ‘마약 치킨’ 등 마약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이 약화하고 있어 평소

용어 사용에도 신중해야 한다. 또한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험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워야 한다. /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 장 朴 哲 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 善 男		편집국장 姜 聲 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위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국토부 장관, 자주 광주 와야하는 이유

이틀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한 이후 무엇인가 돌파구가 열리는 듯한 양상이 지역 내에서 느껴진다. 원 장관은 이번 방문 자리에서 복합쇼핑몰 건립과 광역도로·혼잡도로 등에 대해 국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광주가 세계를 향한 글로벌 미래차 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광주지역 여러 현안에 대해 사이다 같은 시원한 발언을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날에는 순천을 방문해 “경전선이 순천 도심을 우회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체증이 내려가는 발언을 했다. 광주 송정~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이 기존 곡선을 직선으로 해 시속 250km로 열차가 달리도록 하는데, 도심을 통과할 경우 소음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역 미래 발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민심이 들끓었다. 그런데 도심 우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 해결 방안을 모색해 환영을 받았다.

광양-포스코 수소산업 육성 기대한다

광양시와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추진단 관계자들이 최근 서울에서 만나 포스코 그룹 수소사업 추진전략을 듣고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협의하는 등 수소도시 광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협의는 광양시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이차전지 산업과 함께 수소 산업을 적극 추진중인 광양시가 포스코 그룹의 광양지역 수소사업 전략과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광양시는 도심 내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의 초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된 수소를 배관을 통해 수소도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시는 단순 수소활용을 넘어 수소의 생산·공급기지로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한 블루수소와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미량 배출하는 청록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스코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물론 원 장관은 현 정부 국토부 수장으로 전국 곳곳을 돌러 민원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는 광주·전남뿐 아니라 대구·경북 등에도 방문해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 약속을 해왔다. 그럼에도 ‘기울어진 한반도’를 바로잡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광주는 북구 옛 전방 및 일신방직 부지 내 복합쇼핑몰 입점 등 획기적인 도심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때다. 더욱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지원을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의 후속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광주는 지금 복합쇼핑몰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를 위한 도심융합특구와 송정역 투자선도지구, 전남대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지역 내 여러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가 절실하다. 광주 발전이 지역균형발전의 기준점이며, 또한 민주주의 발전이고 올바른 정치·행정이다.

마약범죄에 기회 농친 전두환 손자

기지수첩



민찬기

사회부 기자

실려가기도 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지 오래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44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됐다. 최근 3년 통계에도 2020년 584명, 2021년 385명, 2022년 585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돼 한 달 평균 4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마약을 SNS와 텔레그램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의 마약사범에게 내린 솜방망이 처벌이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마약사범들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대폭 줄여준 사례가 많다.

물론 전우원 씨는 미국에서 마약을 흡입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복귀한 이유는 43년 전부터 그의 일가가 벌인 끔찍한 범행을 대신 사과하고 고백하기 위한 역사적으로도 중대한 일이었다. 결국 마약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그의 주장에 시민들의 눈에는 불신의 씨앗이 심어졌고, 광주 방문도 무기한 연기됐다.

시민들은 이날 광주 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깨우쳐야 한다.

정부도 마약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마약 범죄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